

조, 중 접경지역의 탈북 여성 현황 및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7기 훈련 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 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7기 훈련 팀에서 2009년 1월 1일 ~ 2009년 1월 22일까지 조-중 접경지역의 탈북 여성의 현황과 복음화와 선교전략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인권사각지대에서 절대적 궁핍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과 아이와 같은 약자들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주재하는 탈 북민들 중에서도 특히 탈 북 여성들은 그 지위에서나 생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탈 북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 인신매매와 매매혼으로 인한 탈 북 여성들의 성적유린과 탈 북 여성이 낳은 아동의 방치, 임금착취, 강제추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으로 넘어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해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알리고, 이들의 몸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더 많은 연구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중 접경지역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착하거나 거쳐가는 지역으로써, 북한과 지리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다.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의 조-중접경지역에서는 탈북자의 90.9%가 여성²이라고 한다. 따라서 탈 북 여성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중접경지역이 지역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탈 북 여성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NKFR1기 보고서³에서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NKFR 내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탈 북 여성문제에 관련하여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관들이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북선교는 전반적인 북한 인민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서, 대상이 불분명하여 탈 북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선교전략이 부재하다.

본 조사 팀은 누구보다 북한의 회복을 바라는 탈북자들이 북한

²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2000), p5

³ 2006년 NKFR 1기 보고서 “중국 동북부 탈북동포와 북한 북부 복음화를 위한 노력”

선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북한 선교에 앞서 탈북자 사역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증하고, 탈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여성사역의 선교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 1) 탈북여성문제에 대하여 적실성 있는 자료의 부재에 대해 인식하며, 현실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생생한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탈북여성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도모한다.
- 2) 탈북여성이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탈북여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어 일차적으로는 재중(在中) 탈북여성 및 탈북자들에 대한 사역방향과 이차적으로는 탈북여성과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내부선교전략을 제시한다.
- 3)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남한의 북한선교 관심자들에게 재중 탈북여성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탈북여성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세운다.

3. 조사지역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관련기관⁴의 방문을 통하여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 및 심양, 단둥 시에서 현장감 있는 조사를 진행한다.

연길, 단둥, 심양과 같은 조-중 접경지역은 북한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뿐 아니라 북한선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여겨진다. 특히 연길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중심지이며, 주민의 40%가 조선족인 만큼 탈북여성들이 잠정적으로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되며, 한국인관광객이 많아 한국인조사자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언어사용에 있어 이점이 있다.

⁴ 탈북여성인권연대,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바스피아, 모퉁이돌, 북한인권시민연대를 비롯 총 5개 북한관련기관 및 교회를 방문하였다.

4. 조사대상 및 주제

조-중점경지역에 거주하는 탈 북 여성들을 찾아가 조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탈 북민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탈 북여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탈 북 여성들의 중국에서 성 매매, 임금착취, 강제추방 등을 당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탈 북 여성문제의 원인, 현황, 전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탈 북 여성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교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월 21일⁵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1/01- 2009/01/06	한국(수도권) ⁶	탈 북 여성 관련단체 담당자 및 실무자	현장조사 인터뷰
2009/01/06- 2009/01/07	인천→대련→심양		
2009/01/07- 2009/01/09	중국 심양	북한선교사 탈북자 선교방향	현장조사 인터뷰
2009/01/09- 2009/01/10	심양→연길		

5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및 이동시간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8년 9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6 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 강수진대표,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김태진 대표, 온 누리교회, 영락교회 탈북자 공동체, 바스피아 서대교 공동대표, 모퉁이들 담당 간사, 북한 인권시민연대 박수진 간사. 총 5개 탈북여성관련기관과 2개 교회를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01/10- 2009/01/13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연변과기대 교수 북한 내부 현황	현장조사 인터뷰
2009/01/13- 2009/01/14	중국 훈춘, 방천	훈춘 특수학교 관계자	현장조사 인터뷰
2009/01/14- 2009/01/15	연길→화물→단동		
2009/01/15- 2009/01/19	중국 단동	북한 선교사 탈 북 여성 선교상황	현장조사 인터뷰
2009/01/19- 2009/01/20	단동 24시 북한 기도의 집	북한 기도의 집 담당자	
2009/01/20- 2009/01/21	단동->인천		

6. 조사인원

1) 한동 대학교 국제 지역연구소 북한 조사 팀⁷ 4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남궁미나	글로벌리더십학부(08)	디렉터, 예배부장
2	김 진솔	글로벌리더십학부(08)	미디어부장
3	박 다혜	법학부(06)	문서자료부장
4	주 충성	전산전자공학부 (06)	총무부장

7. 조사방법

(1) 문헌 조사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2000)

⁷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CFR(Chin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 연구학회지, (2002)

(2) 전문가 인터뷰

북한 민주화 운동연합 김태진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박수진 간사
모퉁이 돌 선교회,
탈 북여성 인권연대 강수진 대표
바스피아 서대교 공동대표

(3) 인터넷자료검색

두리 하나 선교회 <http://durihana.co.kr>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모퉁이 돌 선교회 <http://cornerstone.or.kr>

(4) 현장인터뷰

- ① 전문가 인터뷰: 심양 A, B 선교사, 연길 조선족 C선생님, 훈춘 두만강 특수학교 D선생님, 단동 E, G, F 선교사
- ② 일반인 인터뷰: 재중 탈 북 여성 A, 남성 B

(5) 관찰조사

- ① 관디엔, 용디엔 조선족 마을
- ② 훈춘 특수학교, 복음 빵 공장
- ③ 연길교회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성과를 본다면 NKFR 7기 본 조사 팀은 북한 선교를 향한 준비 단계로 조선 족 사역을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조, 중 접경 넓은 지역의 조선 족과 한족들을 복음화 시키셨으며 조선족은 그 복음을 신장 위구르 족에게로 나르는 선교 현장에 까지 파송 된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조선 족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 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북한 선교에서도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놀랍기 만하다. 조선 족은 남한 사람과 달리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성경 배포에서 그 몫을 감당 해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공안 정부의 단속과 북한 정부의 국경경비 강화로 하여 탈북자 수가 급속히 줄어 들었으며 2004년 이후로는 한국이나 중국에

정착한 탈 북 민들이 친척을 찾는 율이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으로 탈 북이 진행되는 추이다. 안정적인 방법이란 북한 국경 경비대군인, 북한측 브로커, 중국 조선 족 브로커에게 모두 돈을 주고 안전하게 강을 넘어오는 방법을 말한다.

중국 내에서의 탈 북 여성 인신매매도 2004년을 기점으로 현저하게 줄어 들어 브로커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특히 인신매매 당한 탈 북 여성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었다. 선교사님들도 이제 더 이상 탈 북 여성 인신매매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는 흐름이었다. 즉 우리가 준비하고 갔던 주제는 이미 한 시절 지나간 옛날의 일과 같이 별로 특별한 결실을 거둘 수 없었다.

II. 들어가는 말

2008년 9월,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신상과 탈북자 보호에 대한 선언이 담김으로써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를 통하여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과 그들의 인권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하여서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하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인권은 도외시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될 사람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이다.

조, 중 접경지역은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 북 할 때에 가장 먼저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 9 이라고 한다. 따라서 탈북자의 인권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성탈북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인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한편 북한 선교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유입된 계기와 축복의 시발점은 북한지역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이 시작되었던 북한땅에 100년이 지난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 있다. 북한은 2007년 기준 5년째 연속 기독교 박해지수 1위국가로,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폐쇄적인 공산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나, 북한주민을 통한 직접 사역, 조, 중 접경지역의 조선족, 중국인, 탈북민을 통한 구원, 선교사역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내 탈 북 여성이 대다수를

⁸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2000), p5

⁹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지, (2002), p242

이루고 있다는 것은 탈북여성에 대한 구원 및 선교 사역이 탈북자 사역의 근간을 이루게 되며 북한 선교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선교에 앞서 선한 사마리아 인과 같이 고난 당한 자를 회복시켜 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 주는 금식하는 자의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된 자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는 그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역으로 탈북 사역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조-중 접경지역 내 탈북 여성 현황

1. 조-중 접경지역 탈북 여성 일반개요

북한에 1996년 ‘고난의 행군’ 때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대거 탈북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에 의해서 팔려가거나 성매매 당하는 등의 인권유린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족들에게 팔려갈 경우에는 청도, 심양과 같은 중국내륙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은 공안에 발각되는 경우 강제복송 당하게 되고,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여 하루하루를 눈물의 세월을 지으며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안에서는 도주를 막기 위해 식구들이 감시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국 공안에서 집계한 통계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탈북 여성은 약 15만 정도라고 한다. 현재에는 같은 마을사람들과 마을의 공안들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인신매매 당하여 유흥업소에서 은둔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신변불안으로 기거할 곳이 적당치 않아서 중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활상의 안정을 해결하고자 한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형태로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약 51.9%에 이른다고 한다(좋은 벗들, 1999).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결혼, 생존을 위한 자발적 혹은 준 자발적 소개 혼의 형태를 띤다. 소개 혼의 경우도 주로 한족 할아버지나 조선족 농촌 노총각들과의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탈북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인 탈북자 동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자치주로의 탈북자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경우 먼 곳으로 탈출이 어렵고, 한어습득이 어려우므로 연변지역에 상당수가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탈북 여성의 탈북 동기 및 배경

1) 경제적 이유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기근과 최근 2007년 가을 흉수로 인한 오랜 식량난이 최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1993년도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여 94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로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악화되었고,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 아사(餓死)하면서 1998년에 대량 탈 북으로 이어졌다. 2008년 세계식량계획(WFP)와 세계식량농업기구(RAO)의 북한식량실태보고에 따르면 북동지방 중심으로 식량부족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탈북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북한의 온정적 가부장제적 의식이 내재된 북한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탈 북을 감행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상황이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다. 직장을 잃은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서거나 중국으로 월경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3) 낮은 정치적 역량 및 자유에 대한 갈망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인민들은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며 정부에서 지정한대로 교육받아 살아야 하는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선거를 할 때에는 간부들이 감시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도 없다고 한다.

북한정부에서는 보위부원들을 각 지방마다 보내어 인민들과 함께 비밀리에 생활하게 하여 당에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인민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3. 탈북 여성의 실태

1) 인신매매, 매매혼

1990년 대 말, 2000년 대 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탈 북 하는 여성 들 중 상당수가 중국 내 농촌으로 팔려가 성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북한 내부의 브로커들과 국경 지역의 브로커들은 탈 북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북한 내 여성들을 속여 중국으로 인도해 내오거나, 아무런 연계도 없이 무작정 식량을 구하려고 탈 북 하려는 여성 들을 국경에서 잡아 인신매매로 팔기도 한다.

탈 북 여성들은 인물, 나이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듯이 거래가격이 결정 된다. 혹 강제 결혼을 피해 도망 나 온 경우에도 또다시 팔려나가기 쉬우 며, 2중, 3중으로 되 팔리는 여성까지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팔려가는 탈 북 여성들은 자기가 팔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설사 안다고 하더 라도 자기가 얼마에 팔리는지 또 북에 있는 가족에게 얼마의 돈이 보내지는 지 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떤 여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강냉이 150킬로그램에 팔려오는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 그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불법 월경과 불법체류신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을 청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임금착취

탈 북 여성들은 불법 월경이라는 신분의 약점 때문에 중국현지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임금마저도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얼마 주기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차서 때가 되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탈북자를公安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약된 돈 보다 훨씬 못 미 치는 적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계약한 돈도 중국 현지인의 임금 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마저도 착취당하고 만다. 하지 만 탈북자들은 탈북자라는 신분 하나 만으로 하여 하소연 할 곳도, 도움을 청할 곳 조차 없는 형편이다.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동북3성지역도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그것 조차도 탈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탈북자의 40%가량이 구걸, 23.5%가량이 임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¹⁰

¹⁰ 임채완, 최영관, “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 으로”, 통일문제연구(서울: 평화문제연구, 2001), P18

3) 강제복송

최악의 경우 탈 북 여성은 중국에서 불법입국자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다.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는 1960년 ‘조, 중 밀 입국자 상호 송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공안의 수색에 걸린 탈북자는 결혼을 했든, 임신을 했든 예외 없이 북한에 보내진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체류하고 있는 마을에서 현지 인과 말썽을 일으킨 경우, 또 탈북자 신고 시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 돈을 목적으로 하여 중국인이 신고하는 경우, 중국 내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대개 많은 경우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복송 된 탈 북 여성들은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고 탈 북 했을 때 3~7 일정도 사상교육을 받고 귀가조치 되지만, 중국에서 결혼을 했거나 임신한 여성은 1~15년 형을 받고,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접촉했거나 종교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총살 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¹¹ 이렇게 봤을 때 북한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4) 탈 북 모 아동문제

강제매매결혼을 통해 탈 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2세의 신분 역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탈 북 여성과의 혼인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이의 호구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 북 모 출산 아동이 공안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복송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최근에는 탈 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복송 시키지 않는 다고 하지만 엄마를 잃은 아이의 장래와 성장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¹¹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지(2002), p253

IV. 조-중 접경지역의 탈 북 여성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북한선교현황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대부분이 새 터민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런 연고 없이 남한으로 온 새 터민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생필품들을 지원하고, 취직을 알선해주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남한 문화에 낯선 새 터민들을 위해 은행거래와 같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탈 북 청소년들을 위하여서는 검정고시준비와 영어공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양육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1:1 혹은 그룹을 구성하여 양육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북한선교단체에서는 전단지 배포를 이용해 북한 지역에 날려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북한선교는 처소를 두어서 탈북자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사역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비자를 받고 중국에 합법적으로도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시 북한에 들어 갈 때 성경, 찬송가, 등을 mp3파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탈 북한 사람들 중 심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어서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3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구출해내는 사역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역들의 중심으로 중보기도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북한과 새 터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남한사람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

2) 활동현황

(1) “모퉁이돌” 선교회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시발점이 되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교단체이다. 재중 탈

북 여성들의 처소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신앙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여기서 훈련된 지도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내 지하교회를 형성한다. 이 단체의 비공개 통계에 의하면 북한 내 지하교회가 1000여 곳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2) 탈북 여성인권연대

탈북 여성인권연대의 주요 사업은 새 터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로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새 터민 여성의 취업연결에만 그쳤다면 지금은 “열매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작업장을 마련하여 직접채용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부차적으로 새 터민 여성 상담소 운영을 계획 중이며, NED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내 탈북 여성의 한국 입국을 돕고 있다.

(3)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국내보다는 국외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경북대를 비롯 대학 탈북 동아리 등에 개별강의, 인권 세미나 증언활동을 하고 있었다.

(4) 북한 기도의 집

북한 기도의 집은 탈북 여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보다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무너진 북한 땅의 회복,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5)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은 탈북 여성인권뿐 아니라 북한문제에 관하여 국내에 최초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처음에는 탈북청소년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북한 아동 권, 탈북 여성문제, 새 터민 지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매년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¹²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공론화, 학술지원과 계간지 발

¹² 북한 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지난 1999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북한 인권시민연합과 해당국 인권단체간 공동주최로 도쿄, 프라하, 바르샤바 등에서 3년에 2번꼴로 열리고 있다. 2008년 영국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전환기를 겪는 북한 사람들, 북한 개발 고려사항, 한반도안보패러다임의 변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제9차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2009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 연구, 리서치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탈 북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모금활동을 통해 중국 내 활동가를 연계하여 3국을 경유한 탈 북 여성의 한국입국을 돕고 있다. 2009년 발행 예정인 아동 권 보고서에는 재중 탈 북 모 아동 문제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6) BASPIA

몽골, 한국, 일본, 중국, 북한 5개국의 인권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실현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인권을 기반으로 공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오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바스피아는 북한 여성인권에 창립계기가 있으며, 탈 북 여성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한국입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 북 여성의 자주적인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중국 내 정착이 중요하다고 본다. 재중 탈 북 여성문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7) 평가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상호간 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으며, 탈 북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국 내에서 실질적 활동가들은 NGO기관보다는 선교단체에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한관련단체에도 탈 북 여성에만 집중하여 조사, 활동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관 인터뷰의 대부분이 탈 북 여성에 집중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소개로 그친 한계가 있음을 염두 해두었으면 한다. 재중 탈 북 여성문제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할 보였으나 바스피아와 모퉁이돌 선교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중국 내 정착보다는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입국을 도와주는 사업을 가장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

3) 구체적인 활동 사례

(1) 탈북 여성 P씨¹³

32살에 중국에 넘어와 인신 매매 단에 의해 흑룡강성에 있는 한족에게 팔렸다. 한족사람에게 팔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안차림을 한 인신매매 단이 P씨를 빼돌렸고, 야산에 데리고 가 나무에 묶은 상태로 윤간을 하였다.

¹³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인신 매매 단은 말이 통하지 않는 한족에게만 파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P씨는 24번이나 팔렸으나, 후에 쉼터를 만나 상처를 치유 받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여 남한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2) 탈북 여성 Q씨¹⁴

작년도 5월에 여러 명의 탈북 여성 기획 입국을 시도했다. 한족에 의해 8개월째 임신 중이었던 여성Q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중국 단둥 시에서 난닝 쪽으로 나가는 데만 이들이 걸렸다. 임신 8개월 반이라는 만삭의 몸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브로커가 안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뿌리칠 수 없어 도와주게 되었다. 중국 땅만 벗어나면 강제 북송 되지는 않으니 베트남 대사관으로 옮기려 하였다. 베트남까지 옮기는 중에 한 시간 후면 난닝 국경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시간 전에 Q는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산후 조리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는 이런 예외적인 일을 위한 여유 비용이 없었다. 기획 탈북을 도와줬던 미국에 전화를 했다. 미국에서는 해산비용까지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였다. 함께 여정을 하던 다른 사람들도 신변보호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열매나무재단에서 병원비 지원해 주었다. 50몇 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떠나려 했는데, 하필 그 지역은 애 낳은 여자 들어오면 패가망신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병원조차도 자꾸 나가라고 해서 다시 단둥으로 후퇴하였다. 지금 Q는 단둥의 사업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곧 있으면 다시 Q씨의 입국을 시도하려 한다.

4) 영적 상황

북한 사회에서 종교적인 행사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며 항간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불교와 유교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점술(미신)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당연히 미신행위 역시 북한 정부가 엄격히 처벌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도 미신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¹⁵

북한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철학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철학에서 보면 종교는 혁명의 아편이라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역시 헌법적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선포하였지만 실제로는 종교

¹⁴ 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¹⁵ 탈북자 B씨의 증언

행위를 억압하는 무 종교사회이다. 1950년 대 말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 진행된 기독교 탄압과 1970년 초에 확립된 김일성 주의 사상으로 북한은 일인독재, 일인미신 사회가 되어 버렸다.

기독교는 특히 북한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 감금이라든가 심지어는 사형에 이르기 까지 엄격히 처벌한다. 1990년 대 말 극심한 식량 위기에 시달리면서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신행위가 더욱 극성이었으며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미신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⁶ 탈 북 여성들이 탈 북에 성공하여 조-중 국경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그들은 미신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2. 방해요소

1) 외부적 방해요소

알려져 있다시피 명목상 중국은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 복음이 알려지려면 전도라는 방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금지와 다름없는 조치이다. “오픈 도어즈 선교회”에 따르면 박해지수12위 국가¹⁷로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땅에 거류하고 있는 기독교도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에 상응할 것으로 짐작된다.

2) 내부적 방해요소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 중에서 기독교인 탈북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그 강도와 처벌의 정도는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3) 기존 선교활동의 한계점

¹⁶ 탈북자 B씨의 증언

¹⁷ 오픈 도어즈 선교회(<http://www.opendoors.or.kr>)는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음주의적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이다. 기독교 박해지수는 특별하게 고안된 49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그 순위를 결정한다.

본 리서치 팀이 만나 본 북한 선교사 대부분은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나 외부 활동의 근거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였다. 탈북 여성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10년간은 무분별하게 넘어오는 탈북 여성의 수를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선교사들의 개인 보안문제와 선교단체의 방침으로 인하여 탈북 여성이 찾아와도 처소를 마련해주거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없는 형편이 대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탈북 여성 선교는 탈북 여성의 한국입국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국 차후에 대한 대책 없는 무분별한 한국 행시도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다. 남한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채로 들어오거나 혹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죄의 본성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못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새 터민들은 오히려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탈북 여성을 제3국과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되어 선교라는 명목 하에 탈북 여성들이 기독교로 인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3. 탈북여성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1996년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탈북 여성 문제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나 2004년 이후로부터 차츰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탈북 여성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순,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중국에 의한 국경강화가 있었고 이어서 김정일 와병설과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강경대응으로 북한 자체로부터 내부 국경폐쇄가 이루어져 탈북자들의 도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가 수면 위에 드러날 정도로 제재 없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인신매매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수치의 정도도 알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는 이미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계 내에서 북한선교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탈북 여성의 무분별한 한국입국이 이루어질 당시, 그 과정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되어 잘못된 현금 수익으로 이용된 예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탈북 여성의 한국행을 돕는 것만이 탈북 여성 선교전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 대상은 중국에 있는 또는 중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으로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은 대체로 한족사회에 동화되어 북한선

교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대체로 북한 선교의 목표를 합법적 월경 자에 대한 제자양육을 통하여 북한 내부에 지하교회설립으로 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북 여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고, 가장 연약한 약자로서 기독교인들이 보듬어가야 할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탈 북 여성 선교전략은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하며, 과연 탈 북 여성의 선교가 북한선교에 어느 정도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탈 북 여성 선교전략은 분야별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탈 북 여성사역뿐 아닌 포괄적인 북한 내부 선교 사역 방향이 제언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정별 선교 전략 제언

(1) 도강한 후 안전가옥에 머무는 경우

탈 북 여성이 도강 이후 안전가옥에 머무르는 경우, 신변과 의식주문제는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여성으로써 성적유린을 당하지 않아도 되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탈 북 여성에게 첫 단계로 의류를 제공함으로써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과정으로 넘어왔든지 불법적으로 도강하게 되면 옷이 젖을 수 밖에 없다. 한 사역 자에 따르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북한 선교에 지원되던 의류의 양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북한 선교에 지원되는 모든 의류가 안전가옥에서 보호받는 탈 북 여성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 내부로도 지원된다.

(2) 중국 내 정착하게 되는 경우

북한으로의 회귀를 기대하여 3국으로 입국을 시도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하거나 결혼, 윤락업소로의 인신매매 등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탈 북 여성에게 한어(漢語)를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어는 탈 북 여성이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위급 시에 조선족으로 위장할 수 있어 신변보호와 좀 더 개선된 환경의 중국 내 정착에 도움이 된다.

중국 농촌에 정착하는 탈 북 여성들은 마을 사람들의 감시에 의해 고립되어 있거나, 신변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여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고약을 바르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유흥

업소, 단란주점 등 성 매매 업종에 종사하게 된 탈 북 여성은 임신과 낙태가 반복되고 질병을 앓아도 농촌의 탈 북 여성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펴 줄 정기적인 검진과 의료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3) 한국 및 제3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

한국 및 제 3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사상적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탈 북 여성들은 외부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될 문화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입국하게 될 대상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타국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 터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인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70%나 되었다. 한국 및 제3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여성 사이에는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는 입국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하게 될 때, 성 매매라는 과거의 상처가 영적으로는 치유되어도 육체적으로는 치유되지 못할 수 있다. 새 터민들이 탈 북 여성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서도 부인과 치료가 필요하다.

3) 대상 별 선교 전략 제언

(1) 단기 팀 선교전략

이제 탈 북 여성 선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선교단체의 방침에 따라 탈 북 여성선교에 손을 놓았고, 합법적 탈북자를 만나는 것은 중국 법 상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은 양심에 걸리는 합법탈북자가 아닌 불법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실제로 농촌 탈 북 여성 심방 사역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적을뿐더러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가 배로 드는 사역이다.

단기 팀은 이러한 중국 내 정착한 탈 북 여성 가정에 순회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 선교 팀은 선교 기간 동안 사역자들, 탈 북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탈 북 여성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다. 열정적이고 훈련된 단기 선교 팀을 통해 제자 양육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변화되기도 한다.

(2) 한국 교회 선교 전략

이전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탈북자 입양운동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한국교회는 탈북자 및 현장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처소를 맡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탈북자 입양운동보다 효과적인 ‘한 교회 한 처소¹⁸ 맡기 운동’을 제안한다. 탈북자들은 개인 신변상의 문제와 북한에서 쌓여있던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처소에 여러 탈북자들을 동시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처럼 한 처소에 한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제자양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북자 입양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사역 자에게 집을 구해주는 사업도 하나의 선교가 될 수 있다.¹⁹ 바로 그 사역자의 가정이나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탈 북 모로부터 출산된 아동들을 위하여는 ‘탈 북 모 아동의 학비 지원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월드비전이나 많은 구호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동 결연 후원의 방식을 비슷하게 적용하여 한 성도 한 아이 결연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편지나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게 자라는 올바른 크리스찬을 양육하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탈 북 여성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탈 북 여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기도일 것이다.

(3) 기독교 NGO 선교전략

기독교 NGO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선교사나 한국교회의 직접적 사역과 달리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NGO를 통한 중국 내 탈 북 모 아동의 보육원, 고아원 설립을 제안한다. 월드비전, 컴패션 등 많은 기독교 NGO들은 이미 보육원, 고아원 사업과 학교설립, 아동복지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첫 대량 탈 북이 이어졌던 96년 고난의 행군 당시 탈 북 하여 한족과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현재 그 아이는 대략 10~15세의 정서가 민감한

¹⁸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으로 쉼터(shelter), 안전가옥과 같은 의미이다.

¹⁹ E선교사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탈북자인 아동의 중국국적 호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은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며 농촌 허드렛일을 하거나, 부모와 함께 근근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또한 한족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여 아이를 버리고 탈북자 어머니가 도망간 경우, 북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에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서 순수한 아이의 영혼이 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아동들의 교육과 정서의 안정과 영혼의 치유를 위하여 기독교 NGO에서 소망을 품고 나서야 한다.

둘째, 장기 선교활동을 위한 선교 기지 확보를 제안한다. 훈춘 특수기술 학교 사례를 들면, 훈춘 시에 있는 한족 장애아동들의 재활특수교육과 복음 빵 공장 운영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있었다. 자매학교로 희망 언어학원(Hope Language School)을 운영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 사업과 동시에 중국 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북한 나진, 선봉지대로의 접근성을 토대로 북한에 고아원, 청년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원 및 기술교육원, 직업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이는 한족사회로부터 환영 받을 뿐 아니라 한족사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미 중국문화에 많이 동화된 북한 사업에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선교를 비롯 북한선교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선교전지훈련센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인까지 포용하는 전문기술학교, 재활센터 등은 중국정부 반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기적인 북한 선교 기지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성 매매 탈북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상담지역을 제안한다. 특히 인신매매로 성적 유린을 당한 탈북 여성들은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²⁰ 성 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자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²¹ 비록 탈북 여성의 가장 큰 탈북 동기가 경제적 궁핍에 있을지라도 자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보다도 심리, 정서적 자활이 우선되어야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심리 상담 치료로 탈북 여성이 회복된 이후에 앞서 제언한 직업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중국 내 정착, 제3국으로 이동 후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²⁰ 서해정, 이기영,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²¹ 이기영(2005), “성매매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자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VI. 나가는 말

2008년 하반기는 북한주민들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한편 남한에서는 2008년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한국 사회에 북한인권 문제 충격과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번 NKFR 7기 보고서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전략을 제시한 6기의 보고서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국내와 국외 현지에서의 조사는 분명히 발생하였다고 여겨진다. 본 조사 팀은 심양, 연길, 단동의 탈 북 여성선교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현장과 교회 실무 담당자 간의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국내의 북한 선교관계자들은 북한선교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명시하고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하기 원하는 반면, 현장의 사역자들은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안전과 중국에서의 보안 유지²²를 위해서 어떠한 축적된 자료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역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자비량 선교를 하거나 같은 지역 내 북한 선교 사역자와의 관계도 단절하고 혼자 사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탈 북 여성 선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교계와 사회에 공론화함으로써 탈 북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잊혀져 가는 북한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굳게 닫힌 북한 문을 향해 끝없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시 한번 리서치를 수행하였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을 묵상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 4).”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애통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 자의 고통과 탄식이 연상된다. 그렇다면 조-중 접경지역에 기거하는 탈 북 여성만큼이나 이 말씀에 합당한 자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소망하는 바는 북한 및 탈 북 여성의 실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탈 북 여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팔복(八福)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애통할 만한 자들에 대해 다들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²² 현지선교사 A,B,C,E,F,G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2000)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지, (2002)

탈 북여성 관련 기관 조사표

탈 북 여성인권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온 누리교회, 영락교회,

1. 탈 북 여성인권연대 (<http://www.nkwomen.org>)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목동2차 우성아파트 B상가 4층 (우)158-070

탈 북 여성인권연대

전 화: 02-2692-5498

가는 방법: 지하철 5호선 화곡 역 7번 출구

2.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은 독립문 사거리에 있는 심지빌딩 3층에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전기안전'이라고 적힌 파란색 대형 옥외광고판이 있으니, 광고판을 찾으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빌딩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복동 10-22 심지빌딩 3층

전화: 02-723-1672

가는 방법

지하철: 독립문역 3번출구로 나와서 서대문 방향으로 200m 걸어가면 고가다리가 보임. 다리 아래로 이어져있는 건널목 3개를 건너면 동물병원이 있는데, 차도를 따라 오른쪽 모퉁이로 돌면 지하도 입구가 나타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왼쪽에 건물 입구가 있다.

7019 홍은동 ◀ 영천시장 ▶ 서울역 7024 봉원사 ◀ 삼호아파트 ▶ 서부역

7021 은평공영차고지 ◀ 영천시장 ▶ 롯데백화점

7712 갈현동 ◀ 영천시장 ▶ 신촌 , 7023 기자촌 ◀ 독립문역 ▶ 서울역

171 정릉 ◀ 독립문 ▶ 상암동 704 북한산성 ◀ 영천시장 ▶ 서울역

471 송파공영차고지 ◀ 영천시장 ▶ 삼송동

706 교하 ◀ 독립문역 ▶ 서울역 701 삼송동 ◀ 영천시장 ▶ 종로1가

720 기자촌 ◀ 독립문 ▶ 답십리

702 서오릉 ◀ 영천시장 ▶ 종로2가 703 광탄 ◀ 영천시장 ▶ 서울역

750 은평공영차고지 ◀ 영천시장 ▶ 서울대

752 구산동 ◀ 영천시장 ▶ 노량진

3. 양재 온누리교회



시내버스 : 140, 470, 471, 641번

지 하 철 : 3호선 양재역 하차(7번 출구 성남, 분당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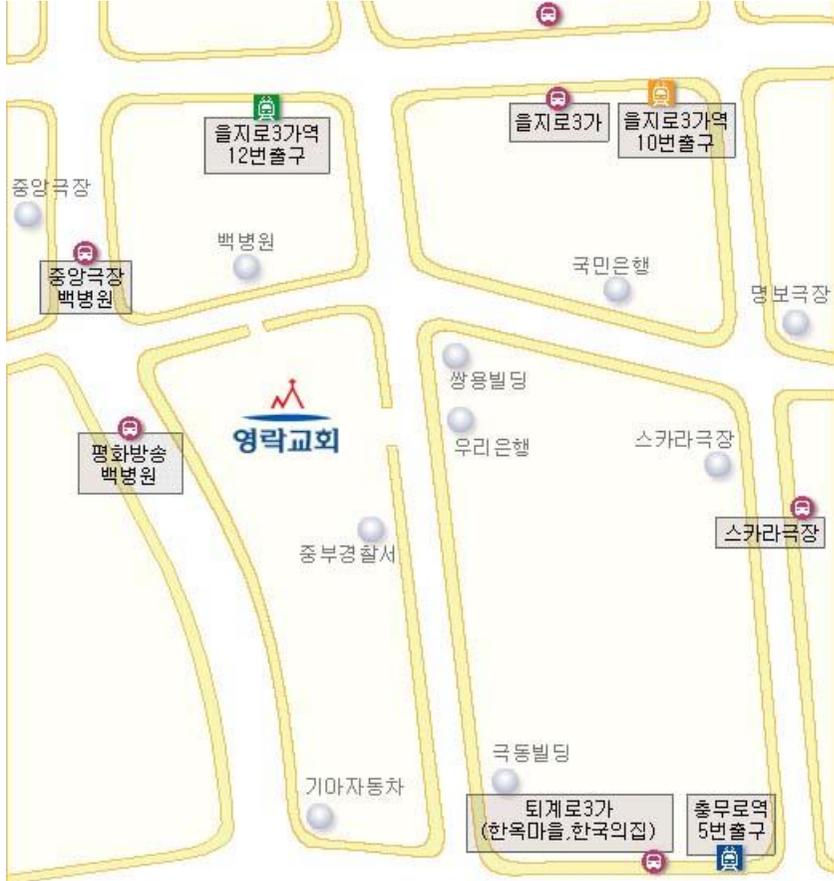
주일 오후 2시 하나공동체 예배

4. 영락교회

1945년 설립; 한경직 목사 재직

Contact:

- 주 소: 100-032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9번지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3호선 을지로3가역 10번 출구, 4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 을지로3가역 출구 : 103, 105, 152, 261, 500, 507, 700번 버스를 타고 교회 앞 하차
- 전 화: 02)2280-0114
- 웹사이트: <http://www.youngnak.net>

Features(대북사역):

1. 북한선교 프로그램

탈북여성 관련 질문지

< 탈 북 여성 인권단체 설문지 >

1. 귀하(귀 단체)가 탈 북 여성 인권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며 시작 연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귀 단체의 사역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3. 한국 국민들의 탈북여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 참여하려는 의식 정도는 어떠합니까? 또한 해외에서의 관심과 참여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 탈 북 여성 인권 사역에 국내, 외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5. 중국 내 탈 북 여성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6. 하고 계신 탈 북 여성 인권 사역과 도식화된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7. 귀 단체의 탈 북여성 인권 사역을 위한 직접적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8. 국내 및 국외(중국, 북한 지하교회와의) 단체 및 개인적 사역협력관계가 있습니까?
9. 중국 현지에서 탈 북 여성 인권 사역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0. 탈 북 여성 인권 사역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내, 외부적 방해요소 및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12. 사역 진행 상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 귀 사역에 대해 국내에서의 참여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설명부탁 부탁드립니다.

<중국 현지인(단체) 질문>

1. 현재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2. 북한 내 여성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3. 북한 여성들의 탈 북 원인은 식량 사정 외에 특별한 다른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탈 북여성의 수는 지금까지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5. 인신 매매로 인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은 만나 본 적은 있습니까?
6. 몸 값으로 강냉이 200Kg을 받기도 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사실입니까?
7. 평균 몸 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그들을 구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중국 공안, 중국인 브로커,

등)

9. 현지에서 어떤 단체와의 연계라든가 도움은 없었습니까?
10. 현지 단체와의 연계라든가 도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1. 중국 내 탈 북 여성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12. 인신매매로부터 탈 북 여성이 구제 된다면 그 향후 동향은 대체로 어떠합니까?
13. 인신 매매 하는 브로커들은 대체로 어떤 종족 이었으며 이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브로커를 통해 탈 북여성 구호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중국 내 탈 북여성 지원에서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탈 북 여성의 안전한 재중 생활의 해결책 혹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선교 부분 질문>

- 1.탈 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경험은 있으십니까?
- 2.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의 접촉이 불가피 한데 탈 북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탈 북 여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한 접근 정도는 어떻다고 느껴졌습니까?
- 4.복음을 전도 받은 탈 북 여성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5.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탈 북 여성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6.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여성(남성)은 몇 명 정도 입니까?

<정치>

1. 햇볕정책과 비 핵 개방3000정책(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좌파적 성격과 우파적 성격으로 분리된 북한 지원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3. 테러지원국 해제가 탈북자 인권이나 북한 인권에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4.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어떠한 선교 혹은 구호지원에 전략적 변경이 있습니까?

<탈북자 난민 인정에 관한 질문>

1. 중국을 설득하여 탈 북 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1967년 난민 의정서에 따르면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탈북 여성(남성)들은 이 두 가지 부류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탄압, 송환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
3. 만약 중국이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완화 규제를 제시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량 탈북 사태 등)

<북한 출신 분(새 터민)들에게 질문>

1. 북한에 계실 때 거주지는 어디 이었습니까?
2. 언제 탈 북 하셨습니까?
3. 국경 어느 곳으로 오셨습니까?
 - 1) 무산
 - 2) 대흥단
 - 3) 회령
 - 4) 온성
 - 5) 기타
4. 처음 중국에 넘어 왔을 때 어느 곳에 체류 하였습니다습니까?
5. 몇 년 정도 중국에 있었나요?
 - 1) 1년 이내
 - 2) 2년
 - 3) 5년 이내
 - 4) 기타
6. 중국에 있을 때 인신 매매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 A. 예
 - B. 아니요
7. 주변 동료 분들 중에 인신 매매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8. 인신 매매로 팔려가는 탈 북 여성의 몸값은 어느 정도라고 추측하십니까?
9. 인신 매매 된 여성들은 대체로 어디로 팔려 갑니까?
 - 1) 유흥업소
 - 2) 청도
 - 3) 천진
 - 4) 미혼남
 - 5) 기타
10. 본인은 인신 매매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 A. 예
 - B. 아니요
11. 경험해 보셨다면 자신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셨나요?
 - A. 알고 있었다.
 - B. 모르고 있었다.
12. 팔려간 곳은 어디 이었습니까?
13. 중국에 계실 때 중국 사람들(한족, 조선족)로부터 어떤 학대를 경험하셨습니까?
14. 북송 되셨던 경험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북송 되셨습니까?
 - A. 1번
 - B. 2번
 - C. 3번
 - D. 4번 이상.
15. 북송 되었을 때 몇 년 형기를 받으셨습니까?
 - A. 2주 ~ 1달
 - B. 6개월
 - C. 1년.
 - D. 1년 6개월.
 - F. 2년 이상
16. 북송 되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탈 북 하셨습니까?
 - A. 1년 후
 - B. 2년 ~ 3년 후
 - C. 3년 ~ 5년 후
 - D. 기타
17. 한국으로 오실 때 NGO단체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그 단체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18.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A. 재정
 - B. 제 3국으로 인도
 - C. 재정 및 3국 행 인도

D. 기타

19.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 1) 브로커의 도움이 NGO단체의 도움보다 좋다 or 나쁘다.
- 2) 브로커의 도움은 위험하다. 아니요 or 예
- 3) NGO단체의 도움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아니요 or 예

20. 중국에 있을 때 탈 북 여성들(혹은 탈북자)을 구조해 준다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A. 예
- B. 아니요

21. (1-A)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A.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로부터
- B. 도움을 받고 있던 선교사님께로부터
- C. 기타_____

22.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짧게 적어주세요.

23.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언제입니까?

- A. 중국에 있을 때
- B. 남한에 들어오고 난 후
- C. 북한에서
- D. 기타_____

24.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방해가 되었던 요소는 무엇입니까?

- A. 북한에서 받은 교육(김일성 숭배사상, 주체사상)
- B. 중국과 북한정부의 기독교 탄압
- C. 복음(기독교)에 대한 이해 부족
- D. 기타_____

25. 탈 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교방법을 제안해주세요.

26. 복송 되었을 때 북한 보위부나 안전부가 본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APPENDIX

북한 인권 법²³

미국의 보수단체인 허드슨연구소 등이 입안하고, 브라운백(Sam Brownback)과 베이(Evan Bayh) 상원 의원이 2003년 11월 미국 상원에 제출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다. 2004년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같은 해 9월 28일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내려 보냄에 따라 다음달 4일 하원의 재심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안은 크게 3장으로 나뉜다. 1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2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3장은 탈북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가 사용된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된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법안에 담겨 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10월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의 제도 전복을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환경 조성용이라고 적극 반발하고 있다.

²³ 두산백과사전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과, 이 법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6자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이슈들

1.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국경 경비 강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계엄'이라 불릴 정도로 보안이 강화되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테러만 보아도 중국 내 소수민족과 접경지역에서의 탄압과 규제가 더욱더 가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여파를 받은 나라는 다름아닌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고, 자국 내 수입품 대부분을 중국을 통해 들여온다. 자가 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진 내부사정에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국경강화로 인해 밀수입되던 식량조차 조달 받을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국경 경비가 완화되지 않아 여전히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 김정일 와병 설과 체제강화

지난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와병 설이 제기된 뒤 2009년 1월 23일 왕 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남으로써 첫 대외면접을 하였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외부 인사를 만난 것은 2008년 6월 방 북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 주석과의 면담 이후 7개월여만이다. 그러나 건강회복의 진위를 떠나 와병 설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설²⁴, 김정일 사망 설을 비롯,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지목했다는 등의 불분명한 루머가 횡행해왔다. 외신접견으로 자신의 건강에 이상 없으며 위치의 건재함을 보인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와병(臥病)으로 인한 지도력 훼손과 외부 개방사회

²⁴ 연합뉴스, “핵이슈 실종, 北유, 불리는” (2008-09-16)

로부터의 끊임없는 정보 유입, 경제적 난관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추스리기 위한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²⁵

3. 북한의 2009년 신년 공동 사설²⁶

(1)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외치는 북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란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교시이자 한 해 동안의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를 직접 밝히는 정책제시 수단인 동시에 대남 및 대외적인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공동사설의 내용 구성은 3분의 1은 지난해 성과를, 3분의 2는 금년도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 1일 “총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주민들을 선동했다. 지난 1월 5일 북한은 평양에서 10만 명의 주민을 동원해 이번 공동사설을 관철시키겠다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총련의 기관지가 전했다.

북한은 올해에 ‘당의 부름에 따라 전인민의 총공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인 비약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성장기였던 1950·60년대 ‘천리마 대고조 시기를 재현하려는 뜻이다. 천리마 운동이 전후 인민동원을 통해 그나마 경제복구에 성공한 것을 감안해 강성대국을 위한 또 한번의 ‘인민 노력동원’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은 ‘인민공화국 창건 60주년, 북한 역사에서 길이 빛날 해로 만들자며 주민들을 선동했으나 2008년까지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우리 나라에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도 총 1만5057명에 이른다. 지난 1월 5일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로 들어온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총 2809명이며,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난 이유는 대부분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이 출입국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 하반기에 중국을 통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544명에 비해 10.4% 늘어난 규모다. 북한은 존엄과 위용을

²⁵ 2008년 12월 탈북한 탈북여성 A씨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²⁶ 국방부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만천하에 과시하기는커녕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 핵 문제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2008년이 이상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해였다고 북한주민들에게는 물론 대내외에 거짓 선전을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2) 신년 공동사설 평가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치, 사상 면에서는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주체사상 및 선군 사상 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일 건강이상 설 유포 및 대북전단 살포, 자본주의 사상 유입에 따라 강력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경제면에서는 경제적 난관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지속되는 경제난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군사 분야에 앞서 경제 분야를 두 번째로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5년 동안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2006년 -1.1%, 2007년 -2.3%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예년과 같이 식량 및 경공업 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되 천리마 운동 등을 재개하여 경제난 타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 현대화를 지속 추구하고 선군 정치의 기초아래‘군사 최우선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군사력을 확고히 해 국력강화 및 강성대국 건설의 여건과 국방 공업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총대중시·군사중시’사상을 강조했다. 인민군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 등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서 군을 통한 내부 통제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노농적위대 창건 50주년을 맞아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자주권 존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을 앞세워 대남·대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 면에서는 우리 정부를 ‘과소독재시대 부활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에 ‘6.15,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고 남남갈등 조장 차원에서 남한 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식량부족 위기

이 시점에 공동사설에서 주장하는 천리마 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천리마 운동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극한의 힘을 발휘하도록 촉구할 때 사용된다고 분석한다.

북한 농촌의 3/10이 굶어 죽어야 할 상황이다. 2008년도는 95~96년도 고난의 행군보다 실제 더 어려워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정도이다. 작년 쌀 1키로의 가격이 보릿고개인 5,6월에는 3000원, 8,9월에 2500원, 10월에 1800원까지 내렸다가 11월부터 갑자기 하루에 3~400원씩 올라 2400원을 돌파하였다고 11월에 중국으로 월경한 B씨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4. 북한의 일방적인 NLL²⁷ 무효화 선언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이 2009년 1월 17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지 13일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간 정치, 군사 대결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의 무효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선언하는 등 잇따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2월 북한군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기지에서 “대포동 2호²⁸”를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최근 남북경색의 모든 책임을 남한 쪽으로 돌리며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이번 군사 움직임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대남도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과 성명 외면 시 군사적 충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북 강경정책을 펴 온 이명박 정부와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한 관심유발과 경고의 메시지로 보인다.

²⁷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19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 육지에서 남북 양측의 한계선 사이 완충지대로써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듯, 해상에서도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이다. 남한 측은 유엔 사령부가 NLL확정을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가가 없었고, 20여년간 관행으로 준수해왔으며,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²⁸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대포동 2호의 경우 사정거리는 4천 300~6천km까지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선교 전략 제언

1. 조선족 우선 선교

조선족은 한족과 달리 중국 내 소수 민족과 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같은 소수민족으로서의 감정들이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조선족은 신장 위구르 쪽으로 가서 그들의 라마 불교를 배우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운다음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곤 한다. 지금 위구르 쪽에서 많은 조선족 사역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선교에서도 조선족의 역할을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유대민족은 2차 대전 히틀러 핍박으로 정착지를 빼앗겨 유랑민족으로 전락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도 유대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고생 끝에 중국 대륙까지 오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허락으로 상해와 하얼빈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나서야 비로서 유대인은 자기의 국가를 가지게 되었고 집 없이 떠돌아 다니던 저들을 받아 주었던 중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택시 값도 적게 받고 최고급 호텔로 인도해주며 싼 값에 정말 좋은 방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고 한다. 조선족 역시 중국 사람이니 그들과의 기본적인 친밀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셈이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오늘 조선족에게 그 소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선교에서도 그들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해내고 있다. 한국인은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조선족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문화와 언어가 통하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친하기도 쉽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기아 사태가 벌어져 수 많은 탈 북 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들이 찾은 곳은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 마을이었다. 만약 그 때 조선족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 되어 있었다면 탈 북 민들은 아마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 들였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야 대량 기아 사태로 탈 북 한 탈 북 민에 대한 선교 전략들이 세워지면서 조선족 교회들도 부흥하고 탈 북 사역도 많이 진척되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수적인 사역 보다는 질적인 사역에 더욱 힘을 치중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제 많은 탈 북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실제로

복음을 믿은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교회를 세우고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내고 있지만 계속적인 북한 사역에 힘을 넣어 주려면 아직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한국 선교사들은 북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0년에 이르는 분단 역사로 하여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이 북한 사역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남과 북의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평양 대 부흥을 이루시려 조선족을 온전한 통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 하도록 하셨다. 동북 3성의 조선족 자치주들은 한류열풍으로 많은 부분들이 한국 문화와 친근해져 있고 중국 자체의 공산문화가 어울려져 있다. 북한 역시 공산 문화이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적중하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여 본 조사 팀은 북한 사역의 특수성에 맞는 선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선족 선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MP4 등 전자기기를 통한 성경 배포

북한 문서사역의 경우 이전에는 성경책을 통째로 보내거나 혹은 종이에 성경 일부분을 필사로 적어 들어가는 경우, 뼈라에 말씀을 적어 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외관상으로도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발각되기 쉽고 필사의 경우 소실되기도 하며, 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었다. 실례로 90년대 말 나진, 선봉 지역이 개방되었을 당시 성경책이 상당수 가정마다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보위부의 수색에 걸려 압수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된 경우가 있다. 또한, 제자양육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지하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이 검열에 걸려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던 사례도 현지 사역 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 성경에서 비롯되지만, 성경책의 형태가 검정색의 네모 반듯한 외관만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을뿐더러, 그것이 북한 내부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성경을 귀로 듣는다면, 비디오영상을 통해 눈으로 보는 간접적인 접촉 역시 복음 전파와 성경 전달의 적절한 대안 책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첨단 기기가 발전되었고, 놀랍게도 북한 역시 컴퓨터,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전자기기가 들어가고 있다. 북한 내부에 일명 ‘알판’이라고 불리는 CD, DVD가 널리

퍼져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MP4, MP5는 기기의 부피가 작아 이동이 쉬우며 조작방법이 어려워 그 안에 설교, 찬양, 제자훈련 파일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었고, 음성성경은 북한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선어로 재 번역된 녹음파일이었다. 북한 지하교회 사역 자들은 외부로부터 양육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거나, 거의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교, 찬양, 제자훈련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북한 내부로 유입하게 될 때, MP기기가 아직 북한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아 인기가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 1, 2대만 들고 가는 경우 사역자의 것은 남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대의 음성성경이 들어가기 위해 5, 6개의 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기 마련을 위한 많은 한국교회의 물질적 지원과 설교말씀 및 찬양파일 제공이 필요하며 이 뿐 아니라 오디오 기술, 컴퓨터 파일 변환 기술 등을 가진 전문인력의 동원도 요구된다.

3. 집중적인 제자양육

선교사의 일대일 제자화를 통하여,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의 회복과 양육을 도모하고 현지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자면 북한 사람들의 생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교회들이 전략을 세우기 어려우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지하교회 지도자를 통해 일정한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기초가 되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분주의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 숭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땅 위에 오직 찬양 받으실 한 분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인 김일성, 김정일이 대신하는 오류를 범한다. 탈북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과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적이고 강력한 제자양육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에 북한내부가 시작된다면 한 발 늦은 것이다. 제자양육의 과정은 대략 3년 3단계 과정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된다.²⁹ 북한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는 미화 140\$ 가량이 비자비용으로 소요되며, 이 사람이 제자양육만 받고 돌아갈 경우에는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기

²⁹ 실제로 E선교사는 3단계 조선어 성경 교재를 가지고 3년 동안 제자양육사례를 진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다음 단계 제자양육 때까지 가정을 부양하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비용까지는 제공해주어야 한다. 지하교회의 육성을 위해 제자양육의 대상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합법 월경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과 제3국으로 입국예정인 탈북자들에게도 단기간 집중 양육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